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
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Hanban)

中外文化交流故事丛书
중외문화교류이야기총서

불경을 얻기 위해 인도로 간 현장 (玄奘)



玄奘西天取经

中韩对照

常征 (창정) 著



北京语言大学出版社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PRESS



北京语言大学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PRESS

汉办
HANS OFFICE

中外文化交流故事丛书
중외문화교류이야기총서

玄奘西天取经

불경을 얻기 위해
인도로 간 현장 (玄奘)

常征(창정) 著



北京语言大学出版社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PRESS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玄奘西天取经: 中韩对照 / 常征著. —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14.1

(中外文化交流故事丛书)

ISBN 978-7-5619-3742-6

I. ①玄… II. ①常… III. ①汉语—对外汉语教学—语言读物 ②玄奘(602~664)—生平事迹—中、韩 IV. ①H195.5 ②B949.92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 016398 号



书 名: 玄奘西天取经(中韩对照)
XUANZANG XITIAN QUJING (ZHONG-HAN DUIZHAO)

总 策 划: 许琳

策 划: 夏建辉 张彤辉 顾蕾 王锦红

韩文翻译: 郭树亮 (곽수경) 韩文审校: 김종현 (金钟贤)/ 孙启林

韩文审订: 全秀贞 韩文编辑: 王伟锋

中文编辑: 袁久强 责任印制: 姜正周

翻译组织: 五洲汉风教育科技有限公司

周福成 滕连帅 李淼 邓成保 李亚娟 李悦

图片提供: 微图 中国新闻图片网 前图 全景图片 CFP 史敦宇 董忠贵

出版发行: 北京语言大学出版社

社 址: 北京市海淀区学院路 15 号 邮政编码: 100083

网 址: www.blcup.com

编辑部: 8610-8230 3647/3592/3395

国内发行: 8610-8230 3650/3591/3648

海外发行: 8610-8230 0309/3365/3080

读者服务部: 8610-8230 3653/3908

网上订购: 8610-8230 3653 (国内)/ 3668 (海外) 邮箱: service@blcup.com

印 刷: 大恒数码印刷(北京)有限公司

经 销: 全国新华书店

版 次: 2014 年 3 月第 1 版 2014 年 3 月第 1 次印刷

开 本: 787 毫米 × 1092 毫米 1/16 印张: 10

字 数: 99 千字

书 号: ISBN 978-7-5619-3742-6 / H · 13368

定 价: 75.00 元

中国与其他国家、民族之间的文化交流具有悠久而曲折的历史。在中国与外国之间，通过间接的和直接的、陆路的和海路的、有形的和无形的多种渠道，各种文化、经济、思想、人员方面的交流，可以上溯至秦汉时代，下及当今社会。长期的、多方面的交流，增进了中国与其他国家、民族之间的了解，使人类的共同财富（物质的和精神的）更加丰富。

中外文化交流故事丛书（중외문화교류이야기총서）的宗旨，是从中外文化交流的历史长河中，选取那些最璀璨的明珠，通过讲故事的方式，介绍给学习汉语的外国人和对中国文化感兴趣的外国读者。这些故事描述中国与其他国家、民族在各个领域文化交流中重要的人物、事件和现象，以使外国读者能够更深入地理解中国，理解中国文明，理解中国文明与其他各文明之间的密切关系，以及中国人和中国文明在这种交流过程中所做出的努力和贡献，并尽力彰显人类共同的精神追求与价值取向。

本书依据有关历史记载，讲述唐代高僧玄奘远赴西天（印度）取经的故事。在近 1400 年前，这位中国僧人不畏艰险，跋涉数万公里，历时 17 年，进行了一次伟大的文化之旅。他为后人留下了丰富的思想和文化遗产，并成为中印文化交流的象征。他游历新疆、中亚、印度一带的真实故事，别具魅力。

중국이 타민족, 타국가들과 맺어온 문화교류는 유구하고도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육로와 해로, 유형과 무형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각종 문화, 경제, 사상, 인력 등 방면의 교류는 진한(秦漢)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이러한 교류는 중국과 타민족, 타국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류 공통의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중외문화교류이야기총서의 발간 목적은 중국과 외국의 문화교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 중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과 중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이 이야기들은 중국과 타민족, 타국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문화교류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인물, 사건과 상황등을 다룬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독자들은 중국과 중국문명을 이해 하게 될 것이고, 중국문명이 타문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류공통의 정신적 추구하고 가치향상을 위해 힘써 노력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연관된 역사기록을 근거로 당나라(唐代)의 고승인 현장(玄奘)이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멀리 서천(西天, 인도)으로 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약 1,400년 전에 중국 승려 현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험겨운 역경을 감내하며 17년간의 위대한 문화 여행을 완성했다. 그는 후세사람들에게 풍부한 사상과 문화유산을 남겼으며 중국과 인도의 문화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현장이 신장(新疆), 중앙아시아, 인도 일대를 두루 다녔던 실제 이야기에는 독특한 매력이 가득 담겨 있다.

1. 玄奘与《西游记》.....	2
2. 玄奘的早期经历	10
3. 偷渡国境的取经人	24
4. 西行路上多艰险	40
5. 留学印度	76
6. 雄辩的中国法师	104
7. 取经东归	130

1. 현장과 《서유기 (西遊記)》.....	3
2. 현장의 초기 경력	11
3. 몰래 국경을 넘어 불경을 구하러 간 사람	25
4. 서행 길의 술한 위험들	41
5. 인도에서 유학하다	77
6. 웅변하는 중국법사	105
7. 불경을 구해 중국으로 돌아오다	131

1. 玄奘与《西游记》.....	2
2. 玄奘的早期经历	10
3. 偷渡国境的取经人	24
4. 西行路上多艰险	40
5. 留学印度	76
6. 雄辩的中国法师	104
7. 取经东归	130

1. 현장과 《서유기 (西遊記)》.....	3
2. 현장의 초기 경력	11
3. 몰래 국경을 넘어 불경을 구하러 간 사람	25
4. 서행 길의 술한 위험들	41
5. 인도에서 유학하다	77
6. 웅변하는 중국법사	105
7. 불경을 구해 중국으로 돌아오다	131

1 玄奘与《西游记》

16 世纪时问世的中国神魔小说《西游记》，以其神奇的想象、丰富有趣的情节和鲜明的人物形象受到各国读者的喜爱，成为一部具有世界性影响的古典名著。这部小说描写佛教僧人唐僧在孙悟空等三个徒弟的保护下，不远万里、历经 81 次艰难险阻到西天（今天的印度）求取佛经的故事。



《西游记》中的唐僧师徒塑像，新疆吐鲁番
《서유기 (西遊記)》에서 당승과 제자들의
조각상, 신강 (新疆) 토로번 (吐魯番)

小说的主人公是机智勇敢的猴王孙悟空。他千变万化，法力高强，可以上天入地，降魔伏怪。因此，这部小说的英译本就叫《猴》。相形之下，唐僧的形象则不免逊色，小说虽然也表现了他诚实善良、为求取佛经而不惧困难的一面，

현장과 《서유기 (西遊記)》

1

1 6 세기 때 발표된 중국의 신마소설 (神魔小說) 《서유기》는 신기한 상상, 풍부하고 재미 있는 줄거리, 생동적인 인물형상으로 각국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고전명작이 되었다. 이 소설은 승려 당승 (唐僧) 이 손오공 (孫悟空) 을 비롯한 세 제자의 도움을 받으며 81 번의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원천리하고 서천 (지금 인도) 으로 불경을 구하러 간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기지 넘치는 용감한 원숭이 손오공이다. 손오공은 자유자재로 변신을 하며 뛰어난神通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늘을 날고 땅속으로 들어가 마귀들을 무찌른다. 그래서 이 소설의 영역본 제목은 《원숭이 (猴)》이다. 이런 손오공에 비하면 당승의 이미지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소설은 비록 그를 성실하고 선량하며 불경을 구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연약하고 무능하며 진부하고 어리석은 불교도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유기》와

但人们更多看到的是一个软弱无能、迂腐糊涂的佛教徒形象。通过《西游记》以及由这部小说改编的图画书、电影、电视等媒介，唐僧的文学形象和取经故事已为世人所熟知。

然而唐僧并非一个完全虚构的人物。“唐僧”的意思是来自唐帝国的僧人，历史上的唐僧，就是唐朝（618年—907年）佛教高僧玄奘（602年—664年）。他是7世纪时伟大的旅行家、翻译家和佛学家。在近1400年前，他不畏艰险，凭借坚定的信念、顽强的意志和杰出的智慧，跋涉数万公里，历时17年，远赴印度取经，创造了一个奇迹。

玄奘西行取经的过程，也是一次伟大的文化之旅。他回中国后写成了历史地理名著《大唐西域记》，记载他亲历的110个和听别人讲述的28个城邦、地区、国家的地理、历史、风

电视剧《西游记》剧照

드라마 《서유기 (西遊記)》의 스틸 사진



《서유기》를 각색한 그림책,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당승의 문학적 이미지와 불경을 구하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승은 결코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다. 당승이란 당 제국에서 온 승려라는 뜻으로, 실제 모델은 당나라(唐, 618—907)의 불교 고승인 현장(玄奘, 602—664)이다. 그는 7세기 때의 위대한 여행가이자 번역가였으며 불학자였다. 약 1,400년 전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굳은 신념과 강한 의지, 뛰어난 지혜로 수만 킬로미터를 걷고 1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멀리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기적을 창조했다.

현장이 불경을 구하기 위해 서쪽으로 갔던 여정은 위대한 문화여행이기도 했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 역사지리명저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써서 자기가 갔던 110여 곳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28여 곳의 도시국가, 지역, 국가의 지리, 역사, 풍습, 생산물, 종교, 문화, 정치 등 각 방면의 상황을 기록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아프카니스탄의 바미안(巴米揚) 불상, 인도역사상 유명한 국왕이었던 실라디타(戒日王, 589—647), 인도 고대 불교의 학술중심



現代學者整理的《大唐西域記》
현대학자가 정리한 《대당서역기》

俗、物产、宗教、文化、政治等各方面的情况，其中提到了著名的阿富汗巴米扬大佛、印度历史上有名的国王戒日王（589年—647年）、印度古代佛教学术中心那烂陀寺（现在印度比哈尔邦的巴拉贡村）等。这部著作是人们了解7世纪前中亚、南亚历史的重要资料。如果不引用这部著作，人们几乎无法研究印度古代问题。



现代学者整理的《道德经》
현대 학자가 정리한 《도덕경》

玄奘还是伟大的翻译家，他在生命的最后将近20年中，独自翻译或者主持翻译了佛教经典达1300余卷。这项工作非常艰苦，因为他是将极其复杂、难以掌握的梵文翻译成中文，而且译文质量很高。以现在的图书规模计算，他的这些翻译作品大约有400册之多。这是非常惊人的。

而且，他还将中国卓越的哲学著作《道德经》和用汉语写成的佛学著作翻译成梵文。

玄奘为中外文化交流做出了重大贡献，因此获得了极高的评价。如今，印度的博物馆里陈列有他背着行李求取佛经的图像，把他当作“圣人”。20世纪初，研究印度历史的英国学者史密斯认为：“对这一部著作（指《大唐西域记》）无论评价多

사원이었던 나란타사(那爛陀寺, 지금 인도 비하르의 파랍공촌[巴拉貢村]에 있음)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저서는 7세기 이전의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만약 이 저서가 없다면 고대 인도를 연구할 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현장은 또한 위대한 번역가이기도 했는데 그는 죽기 전까지 거의 20년간 1,300여 권에 달하는 불경을 독자적으로 번역하거나 번역을 주관했다. 복잡하고 익히기조차 힘든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무척 힘든 작업이었다. 더구나 번역문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지금의 도서규모로 계산하면 그가 번역한 작품은 대략 400권이 넘는데 이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는 중국의 탁월한 철학서인 《도덕경(道德經)》과 중국어로 씌어진 불학(佛學) 서적들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현장은 중외문화 교류에 있어서 위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지금 인도의 박물관에는 현장이 등에 짐을 지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으며 “성인(聖人)”으로 간주되고 있다. 20세기 초에 인도의 역사를 연구했던 영국학자 스미스는 “이 책(《대당서역기》)을 가리킨다)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어떤 인도의 역사학자는 만약 현장과 같은 중국인의 저서가 없었다면 “인도 역사를 재건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장이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갔다가 영예롭게 돌아온 사

高也不会过分。”一位印度历史学家则说，如果没有玄奘等中国人的著作，“重建印度史是完全不可能的”。

玄奘到印度取经、载誉归来的事迹，也在中国引起轰动。他去世后，佛教徒们为他写了多种传记，包括由他的两个学生所写的8万多字的长篇传记。在这些著作中，已经将玄奘的事迹与一些佛教神话故事结合起来。此后，人们不断将唐僧西天取经的故事神化，最终形成了小说《西游记》。

下面介绍的玄奘西天取经故事，依据的是有关的历史记载。玄奘的一生的确很不平凡，尤其是他游历新疆、中亚、印度一带的真实故事，虽然不像小说所描写的那样神奇，却也别具魅力。

적(事迹)은 중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가 죽은 후에 두 제자가 쓴 8만여 자의 장편 전기를 포함해서 많은 불교도들이 그에 관한 전기를 썼다. 그 중에는 그의 사적을 불교신화와 결합한 것도 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당승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간 이야기를 끊임없이 신격화하더니 결국은 소설《서유기》를 탄생시켰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는 관련 역사기록을 근거로 했다. 현장의 일생은 확실히 비범했는데 특히 그가 신강, 중앙아시아, 인도 일대를 두루 다녔던 실제이야기는 비록 소설에서 묘사한 것만큼 신기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독특한 매력을 가득 담고 있다.

2 玄奘的早期经历

小说《西游记》中，玄奘的父母经历了短暂的辉煌和随后十分悲惨的遭遇，致使玄奘从婴儿时期开始就被迫生活在寺院中。当然这只是民间传说。事实上，玄奘小时候是跟父母生活在一起的。

玄奘的家乡是现在的河南省偃师市，他本来姓陈，名祿。按照规定，出家成为佛教徒之后要放弃原来的名字，另外取一个法号，“玄奘”就是他的法号。他的父亲是个相貌堂堂的美男子，很有文化修养，从小就指导玄奘学习儒家著作。玄奘非常聪明，听到父亲讲儒家经书里面的训诫，马上就能领会其意思，并严格执行。父亲很高兴，亲戚朋友也都认为玄奘是个神童。

玄奘是父亲最小的儿子，性格却很谨慎温和，懂得照顾父母。他是个非常早熟的孩子，喜欢研读严肃的书籍，从来不与别的孩子一起玩耍，街上有什么热闹的场面，他也从不出门去看。

현장의 초기 경력 2

소설 《서유기》에서 현장의 부모님은 잠시 잘 살았지만 굉장히 비참한 운명을 맞았기 때문에 현장은 어린 시절부터 절에서 생활해야 했다. 물론 이것은 민간전설에 불과하고 실제로 현장은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살았다.

현장의 고향은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언사시(偃師市)이며 그의 본래 성은 진(陳), 이름은 의(祗)였다. 규정에 따라 출가해서 불교도(佛教徒)가 되면 속세의 이름을 버리고 법명을 지어야 했는데 그 때 받은 법명이 바로 현장이었다. 삼장의 부친은 용모가 수려한데다가 문화적 소양도 뛰어났는데, 현장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유교경전들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장은 대단히 총명해서 부친이 유교경전의 교훈을 들려주면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했다. 부친은 매우 기뻐했으며 친척과 친구들도 모두 현장을 신동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현장은 막내아들이었지만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부모님을 잘 모셨다. 현장은 어렸을 때부터 성숙한 편이어서 고전적인 서적을 읽고 연구하기를 좋아했다. 또한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치지 않았으며 길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구경거리